

사회

“아빠, 저 납치 당했어요”

치밀·대담해진 보이스피싱 기승...조작음성 들려주며 돈 요구

순천서 택시기사 신고로 수천만원 피해 막기도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사는 학부모 김모(여·53)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신 아들 ○○를 납치했으니, 살리려면 당장 500만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이였다.

40대 초반 남성의 목소리에 이어 “아빠, 너무 무서워요. 이상한 아저씨가 때려요”라는 다급한 하소연이 들려왔다. 목소리도 아들과 비슷했다. 이 남성은 “30분 내로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김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충 설명한 뒤 “당장 돈을 송금하라”며 재촉했다. 하지만, 이상한 낱새를 차린 남편은 곧바로 아들에게 확인 전

화를 했다. 아들은 친구들과 물놀이 중이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 납치 및 성폭행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잇따르면서 자녀납치 빙자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30일 현재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63건이다. 피해액만도 무려 4억여원에 달한다. 한 달 평균 1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일선 학교·학원·어린이집에도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은 학부모 문의

전화와 늘고 있다. 이 같이 자녀납치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다른 보이스피싱보다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자녀 일리라면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사기단의 말을 믿기 쉽다는 것이다.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자녀의 이름·나이·주소·가족 및 친구 관계를 아는 경우가 많다.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순천시 연향동에 사는 이모(여·47)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를 납치했다. 친구 ○○도 함께 있다. 당장 3000만원을 이체하라”는 전화였다. 처음에는 전화금융사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아들 이름·나이는 물론 가족관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씨는 통화상황을 지켜본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낱새를 차리고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이 무전을 통해 근무자들에게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이씨의 아들은 친구들과 물놀이 중이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납치전화에 걸려오면 당황하기 쉬운데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자녀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녀 동선 파악하기 ▲친한 친구 연락처 알아두기 ▲인터넷 미니홈피 등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신나는 레일바이크 13일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레일바이크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곡성 레일바이크는 침곡역서 가정역까지 5.1km 구간을 운행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000원권 위조지폐 광주 북구서 7장 발견

광주의 한 은행에서 5000원권 위조지폐 7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북구 신안동 모 은행 지점 직원이 13일 오전 10시 “업무 처리 중 5000원권 7장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조지폐가 5000원 양면을 각각 단면 복사해 붙여 만든 것으로 미뤄 조직적으로 제작된 위폐는 아니라고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900만원 안 값야” 채무자 폭행 치사

여수경찰은 13일 돈을 갚지 않라며 채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김모(41·여수)씨를 폭행치사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50분께 여수시 신기동 속칭 깔럭시골목길에서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장모(51)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빌려간 돈 900만 원을 기한 내에 갚지 않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장씨가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1일 오전 8시에 숨졌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휴대전화 잘못 누른 119 신고 골치

전남서만 매일 380건 소방행정력 낭비 심각

잘못 누른 휴대전화 번호가 119로 연결되는 경우가 전남지역에서만 매일 380건에 달해 소방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13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휴대전화를 통한 119 총 신고 건수는 14만여건으로 총 신고건수(28만5996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번호를 잘못 눌러 접수된 신고 건수가 8만1000여건으로 60%를 웃돌고 있다.

휴대전화로 인한 잘못된 119 신고는 상당수가 ‘011-9XXX-XXXX’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첫 번째 ‘0’이 눌러지지 않은 경우 현행 시스템상 곧바로 119 상황실로 접속토록 돼 있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어린이나 유아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 실수로 접속되거나 최근 대량 보급된 터치폰으로 인해 번호를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수로 휴대전화로 119 신고를 한 신고자중 일부는 자신의 위치추적 정보가 119에 전송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사생활 침해’라는 항의전화를 119로 하고 있어 소방당국만은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법상 휴대전화로 119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신속한 출동을 위해 이동통신사에서 고객인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119에 전송하고, 이 사실은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자동 발송토록 돼 있기

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119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을 웃돌고, 이중 60%에 가까운 신고가 번호를 잘못 눌러 신고된 것”이라며 “휴대전화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못된 신고전화로 인한 위치추적 확인 문자가 전송되더라도 놀라거나 오해하지 말아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9월 초순까지 불볕더위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중순돼야 평년기온

올해 무더위가 9월 초순(1~10일)까지 이어지다가 9월 중순(11~20일)이 돼야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7월 말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던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오래 머물면서 8월 하순(21~31일)과 9월 초순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광주·전남지역은 9월 초순까지 평

년기온(23~25도)보다 높은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39~209mm)과 비슷하겠으나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9월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돼 기온은 평년(20~22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9~49mm)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태평양고기압의 고온다습

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상기온 현상이 이어져 지난 한 달(7월11일~8월10일)동안 광주의 평균기온은 27.1도로 평년에 비해 0.8도 높았으며, 특히 한 달 중 평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은 열흘을 제외한 21일이나 됐다.

광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은 23일로 평년값(24일)과 비슷했으나 33도를 넘는 날은 8일(평년값 0일)을 기록했고,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발생한 날도 14일(평년값 0일)이나 됐다. 올해 가장 높았던 낮 최고기온은 지난 9일 34.6도이며, 일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지난 1일 27.1도를 기록해서 최근 10년 동안 두번째로 뜨거운 밤을 기록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내일 65주년 광복절
광주·전남 경축행사**

제65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15일 오전 10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목포시민문화센터에서 거행된다.

이날 경축식에 앞서 오전 9시40분 강연대 시장과 윤봉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애국지사과 종교계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은 광주공원내 현충탑을 참배할 예정이다. 경축식은 오전 10시 독립유공자와 시민 등 9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전남도는 15일 오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애국지사,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 경축식을 갖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1분 해질 19시 23분 달돋이 10시 28분 달질 21시 39분

오락가락 비 흐리고 비가 온 뒤 낮부터 점차 개겠다.

지역	기온
광주	비온뒤 26/31℃
목포	비온뒤 26/30℃
여수	비온뒤 25/29℃
완도	비온뒤 25/30℃
구례	비온뒤 24/32℃
애남	비온뒤 25/30℃
장흥	비온뒤 25/30℃
고흥	비온뒤 25/31℃
순천	비온뒤 24/32℃
영광	비온뒤 26/32℃
진도	비온뒤 25/30℃
전주	비온뒤 26/32℃
남원	비온뒤 25/30℃
옥산도	비온뒤 24/29℃

〈오전〉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19.5 1.5 1.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1.0~2.0m 보통 경고 매우높음

〈오후〉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목포 04:59 10:07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17:29 22:27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여수 11:56 05:3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17:54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6/30	25/30	25/31	24/32	24/32	25/32

주말·광복절 흐리고 한때 비

주말인 14일과 광복절인 15일 광주·전남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14일 새벽 서해안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부터 점차 그치겠다. 오전 한때 전동·변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광복절인 15일에도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4~15일 광주·전남의 예상 강수량은 20~60mm.

14·15일 광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0~31도로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17일까지 이어진 뒤 18일부터는 다시 낮 최고기온이 1~2도 가량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중순부터 점차 아침 최저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어린이 구강보건학교 13일 조선대 치과대학병원에서 열린 ‘제2회 어린이 구강보건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구강진료실에서 치료 진료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안 하의도 DJ 추모관 18일 개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관이 서거 1주기를 맞아 신안군 하의도 생가 옆에 문을 연다.

신안군은 지난달부터 7천여만원을 들여 생가 옆에 49.5㎡의 추모관과 기념품 판매장을 짓고 있으며 김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오는 18일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모관 입구 맞은 편 중앙에 김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안치하고 좌우

측 벽에는 지난해 4월 24일 고향방문 시 큰 바위 얼굴 앞에서 찍은 사진을 비롯해 재임 전후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이 걸려 방문객을 맞는다.

하의도 생가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 음악회, 찻길 굿 공연, 추모식이 열린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굴삭기 2대 잇따라 불

광주에서 하룻밤 사이 두 대의 굴삭기 화재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새벽 5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 모 고교 공사현장에 주차된 전모(36)씨의 굴삭기에서 불이 나 소방서출동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작업용 마친 뒤 열쇠를 꽂아둔 채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새벽 0시30분께에는 광산구 운남동 S아파트 후면에 주차된 전모(43)씨의 굴삭기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굴삭기 2대 모두 배터리스파크 등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어선 들이받고 달아난 캄보디아 어선 조사

목포해양경찰은 13일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대기 중인 어선을 들이받고 달아난 캄보디아 상선을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50분께 신안군 부남도 서쪽 해상에서 정박하기 위해 투모 대기 중인 목포선적 69t 안강방 어선 안상호 맷머리를 충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캄보디아 선적 4천t급 화물선 제니트호를 붙잡았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6116@

물에 빠진 중학생 5명 극적 구조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5명이 물에 빠졌다가 모두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

○13일 오후 3시 30분께 담양군 고서면 중앙천에서 박모(15·중2)군이 슬리퍼를 쪼다다 넘어져 급류에 떠내려가자 함께 있던 김모(15)군 등 친구 4명도 박군을 구하려 물에 들어갔으나 물살을 견디지 못해 표류.

○신고를 받은 중앙경찰서 고서파출소는 즉각 현장에 출동, 구명튜브를 던져 박군 등을 모두 구조했으며, 이 가운데 김군은 50여m를 떠내려가 수초를 잡고 버티다 실신했지만 건강상태는 양호.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 작가 휴가로 이번 주 만화·만평 없습니다.